

### 3.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순천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에 인근 구례지역의 화엄사 4사자석탑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서 통일신라시대 효와 출가 사이의 갈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석탑을 세운 인물은 연기법사이다. 그는 경덕왕대 인물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화엄경을 사경하였으며, 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4사자석탑을 건립하였다. 그는 의상계 화엄종 계통의 인물이었다. 의상계 화엄종은 실천성이 강해 효도와 출가의 갈등을 조화시키는 효선쌍미신앙을 성립시켰다. 연기법사 역시 의상계 화엄종에서 주도하였던 효선쌍미신앙을 성립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연기법사가 활동하였던 경덕왕대에는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효도에 대한 관념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유학자들은 불교도의 출가가 효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던 듯싶다. 여기에 대하여 불교계는 출가자들 역시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조형물이 필요하였다. 이에 4사자석탑과 같은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신라 하대사회가 왕위계승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왕위계승전이 일어났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견해가 제시되지 못했다. 왕위계승전을 진골귀족의 가계분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가계분지와 왕위계승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못했다. 신라 하대사회의 변동과정을 통해서 순천지역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자.

먼저 흥덕왕의 개혁정치를 주목해보자. 흥덕왕은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834년(흥덕왕 9)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반포하였다.

사람은 상하가 있고, 지위는 준비가 있어, 명칭과 법식이 같지 않고 의복도 다르다. 그런데 풍속이 점점 각박해지자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호화를 일삼고 다만 외래품의 진기한 것만을 숭상하며, 도리어 토산품의 꾸밈없이 소박한 것을 싫어하니, 예절이 참람하게 되고 풍속이 파괴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옛 법에 따라 엄명을 베푸는 것이니, 그래도 만일 일부터 범하는 자가 있으면 국법을 시행할 것이다.

이 교서는 무너져가는 골품제를 부지하고 신분질서를 가다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흥덕왕의 이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외래품이 당시에 유행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에 유행하던 외래품으로는 색복(色服)·거기(車器)·기용(器用)·옥사(屋舍)조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타슈켄트지방 아자르 해 동안(東岸)에서 나오는 일종의 에메랄드인 슬슬(瑟瑟), 페르시아산으로 앗을 때 사용하던 모직물인 답등, 보르네오와 자바 등지에서 잡힌 거북의 가죽으로 만든 대모(玳瑁), 자바 스마트라산 유향목재인 자단(紫檀), 참과·스마트라산 향료인 침향(沈香) 등이다.<sup>1)</sup> 이러한 외래물품을 사들이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기던 신라 귀족들의 모습을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왕이 좌우의 신하들과 더불어 월상루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서울에 사는 백성들의 집이 서로 잇닿아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저를 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왕이 시중 민공을 돌아보고 일러 가로되, “내

1) 이용범, 「삼국사기에 보이는 이슬람상인의 무역품」, 《이흥직박사회갑기년 한국사학논총》, 1969, 96~102쪽.

가 듣기로 오늘날 백성들 사이에서 집을 덮되 기와로써 하고 띠로써는 하지 않는다 하고, 밥을 지을 때 솥으로써 하고 장작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하였다.(『삼국사기』 권11, 현강왕 6년 9월 9일)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신라 귀족들의 물질적 배경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재상가(宰相家)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으며, 노동(奴僮)이 3,000명이요, 갑병(甲兵)과 우(牛)·마(馬)·저(猪)가 이와 상등하였다.”고 하였다. 재상가는 일반적으로 중앙의 대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많은 재부를 가졌다.<sup>2)</sup> 대귀족 소유의 재부는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재부는 토지생산물 이상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토지의 집중현상이 일어났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발달된 중국농법을 받아들인 선승들이 휴한단계에서 연작단계로 전환을 주도하여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인 것도 귀족들의 재부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sup>3)</sup>

늘어난 재부는 분배과정에서 편중되게 나타났다. 하대에 이르면 진골들도 관계 진출에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 가령 855년(문성왕 17) 경주 창림사(昌林寺) 무구정탑(無垢靜塔)을 건립하는 데 간여했던, 왕의 종제(從弟) 김예(金銳)는 당시 관등이 사지(舍知), 관직이 현령에 불과했다. 또한 왕의 종숙(從叔)들인 김계종(金繼宗)·김훈영(金勳榮)도 각기 무주장사(武州長史), 강주사수현령(康州泗水縣令) 등 비교적 하위관직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는 진골귀족의 포화상태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sup>4)</sup> 진골귀족들의 분화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재부를 많이 가진 진골과 그렇지 못한 진골들로 분화되고 있던 모습을 반영해준다.

그런데 농업생산력 증가에 따른 부의 증가는 진골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에게도 나타났다. 사치스러운 외래품은 단지 진골귀족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평민들도 사용하였다.<sup>5)</sup> 이런 상황은 지방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임해전에서 군신을 향연할 때 왕족 응림은 나이 15세로 참석하였다. 왕이 응림의 심지를 엿보기 위하여 갑자기 “네가 얼마 동안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견학을 하였으니 더러 착한 사람을 본 일이 있느냐.”고 묻자, 응림이 대답하되, “신이 일찍이 세 사람을 보았는데, 다 선행이 있는 줄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였다. 왕이 어떠하더냐고 물으니, 응림이 대답하기를 “하나는 귀한 집 자제로서 남과 교제함에 자기를 먼저 하지 않고 남의 밑에 처하기를 좋아하였고, 하나는 재부한 집 사람으로 오래 의복이 사치할 터인데 항상 배와 모시로 만족하고 스스로 즐거워하였으며, 또 한 사람은 세력과 영화를 누리면서 그 세력을 가지고 남을 누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이 본 바는 이러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이 사료는 응림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본 지방사회의 실정이다. 지방사회에서도 재부를 가진 자와 귀한 자, 권력을 누리는 자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하는데, 지방사회에서 호족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름 아닌 재부의 증대이다. 순천지역의 호족인 박난봉(朴蘭鳳)은 많은 재부와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순천지역의 민들을 독자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 하대사회에서 장보고의 존재는 매우 특이하다. 장보고와 순천 인근인 장흥 천관산에 관한 다음 사료는 펍 흥미롭다.

2) 이기백, 『新羅私兵考』, 『신라정치사회사연구』, 1975, 256쪽.

3) 위은숙, 『나말여초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그 주도세력』, 『투대사학』9, 1985.

4)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전과 정치과정』,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1980, 178~179쪽.

5) 이용범, 앞의 논문, 99쪽.

신라 신호왕(神虎王)이 태자가 되었을 때에, 마침 임금의 견책을 당하여 산 남쪽 완도로 귀양을 갔다. 화엄 홍진(洪振)대사가 본래 태자와 좋은 사이라, 동궁의 일이 급함을 듣고 달려가 이 절에 의지하여 밤낮으로 정성껏 예를 하며, 화엄 신중(神衆)을 불렀다. 곧 여러 신중이 부름에 감응하여 절의 남쪽 봉우리에 죽 늘어서니, 지금의 신중암(神衆巖)이 그것이다. … … 지난 경자년 가을 7월에 내가 일찍이 이 산에서 놀면서 성적(聖跡)을 탐방하였는데, 탑산의 주공(主公)인 담조(曇照)가 나에게 고적(古籍)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 초본(草本)이 산 뒤 민가에 유락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가서 얻게 되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찢어지고 썩어서 글자가 없어진 것이 많으니, 그 뜻의 실마리를 찾아내어 새롭게 하여서 후세에 보여주면 이것도 또한 유통의 일단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때 마침 내가 다른 곳에서 청하여 가게 되어 생각을 모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뒤에 담일이라는 자가 또 이 초본을 나에게 주었다. 상자 속에 넣어둔 지가 오래되었는데, 요즈음 한가한 날에 우연히 검열하게 되어 대강 그 줄거리를 기록하여 그 뜻에 응하고 초본과 함께 정하게 돌려보내노라.(『동문선』 권68, 「천관산기」)

「천관산기(天冠山記)」를 쓴 천인(天因)은 1205~1248년에 생존했던 인물이다. 13세기에는 고려 불교계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결사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개혁운동의 선구가 전라도 지방에서 일어난 수선결사와 백련결사이다. 수선결사는 지금의 순천시 송광사를 중심으로 보조국사 지눌이 제창하였으며, 백련결사는 강진 만덕산을 중심으로 하여 요세(了世)가 개창하였다. 천인은 그 중 백련결사에서 활동하여 마침내 요세의 사주(社主)를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천인의 성은 박씨이며 연산군(燕山郡)에서 1205년(희종 1)에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박학강기(博學強記)하며 문장이 뛰어났다. 1221년(고종 8) 17세에 진사과에 뽑혀 현관(賢關:성균관)에 들어갔다가 그해 겨울 고예시(考藝試)에 1위의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예부시(禮部試)에 뜻을 두지 않고 1228년 동사생(同舍生) 허적(許迪), 진사(進士) 신극정(申克貞)과 더불어 세상을 피해 만덕산의 요세(了世)를 찾아가 삭발하였다.

이러한 경력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유학에 대한 지식은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출가한 이후 저술하기를 삼갔는데도, 유고를 모아 시집 3권을 편찬했을 만큼 시와 문장에 능통하였다. 「만덕산백련사정명국사시집서(萬德山白蓮社靜明國師詩集序)」를 쓴 임계일(任繼一)은 그를 “유교와 불교를 겸비하였으며, 도행이 고결하여 전고에 구해 보아도 듣기 드물다.”고 평가하였다. 당시 그의 문장력은 유명하였던 듯싶다. 그래서 탑산의 주공인 담조가 천관산 뒤쪽 민가에서 얻은 오래되어 찢어지고 썩어 글자가 많이 보이지 않는 초본의 문서를 그에게 해독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경자년(庚子年)은 1240년이다. 천인은 1241년에 상주목사 최자(崔滋)가 백련사 계통의 미면사(米麵社)를 결성하였을 때 그 결성식에 참석하였다. 1245년 다시 만덕산에 돌아와 요세의 뒤를 이어 백련결사의 사주가 될 때까지 그는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녔다. 그가 초본 문서를 본 것은 요세의 백련결사 사주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이곳 저곳을 유람하던 때이다. 「천관산기」에는 1240년에 천인이 불교의 성적(聖跡)을 탐방할 목적으로 천관산에 들렀다가 처음 초본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정이 바빠 볼 겨를이 없었는데 그 뒤 한가할 때 검열하여 대강 그 줄거리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당시 문장력이 일류급이었던 그가 검토하였던 만큼, 비록 해진 곳이 많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할지라도 검토된 내용은 믿을 만하다고 여겨진다.

「천관산기」의 저본이 된 것은 천관산 뒤쪽의 민가에서 발견된 초본이었다. 이 초본을 누가, 언제 썼는지를 아는 것이 관건일 텐데 아쉽지만 알 길이 없다. 단지 내용을 통해 추정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료에서 작성연대를 최소한도나마 알려주는 것은 신호왕과 남악(南嶽) 법량사(法亮師)이다. 신호왕은 신라 45대 신무왕(神武王)을 가리킨다. 신무왕의 '무(武)'자가 고려 혜종의 휘(諱)와 같기 때문에 피휘(避諱)하여 호자를 대신 쓴 것이다. 이로 보아 이 초본이 쓰인 시기를 혜종 이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초본에는 신무왕이라고 쓰여 있었으나, 천인이 이를 요약하면서 피휘하여 신호왕이라고 표기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혜종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남악 법량사의 존재 역시 오리무중이다. 아쉽지만 이 초본의 작성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다.

이 사료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많다. 신무왕인 김우징(金祐徵)은 832년 김헌창의 반란 때 대아찬으로 이찬(伊漘) 해정(海貞), 잡찬(迺漘) 웅원(雄元)과 함께 삼군을 거느리고 진압에 공을 세웠으며, 그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시중을 역임하였다. 흥덕왕이 죽자 그의 아버지인 김균정(金均貞)이 상대등으로서 왕위에 오르려 했다. 그때 시중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김명(金明)이 형식상으로 김제룡(金悌隆)을 희강왕(喜康王)으로 추대하면서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그 싸움에서 김균정은 김양(金陽)의 도움을 얻었으나 죽고, 김우징은 패잔병을 이끌고 청해진의 장보고에게 의탁하였다. 이 사실을 여기서는 태자로 있으면서 임금의 견책을 받아 완도로 귀양갔다고 하였다. 김우징이 태자였던 적도 없었으며, 국왕의 견책이 아닌 왕위쟁탈전의 패배로 완도로 내려갔던 것이다.

여하튼 완도로 내려간 김우징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군사를 키워갔으며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김명이 희강왕을 자진케 하고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올랐다. 이 사건은 김우징이 장보고의 의협심을 불러일으켜 군사를 동원하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도망간 김양에게 다시 군사적 협력을 얻을 수 있게 되자, 김우징은 장보고의 군대를 동원하여 1차로 무주 철야현(鐵冶縣:나주군 남평면)에서 국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구로 진격하여 민애왕의 10만 군사를 무너뜨렸다. 앞의 사료에, 흥진대사의 도움으로 화엄 신중을 불러모았다는 내용은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김우징은 완도로 내려온 이후 장보고의 세력권이던 장흥지역까지 와서 군사를 수합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위의 고찰로 미루어볼 때, 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사건과 상당히 일치하는 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우징이 완도의 장보고에게 피신한 후, 군사를 모으기 위해 장보고의 세력권인 장흥 천관산지역까지 왔는데, 그때 화엄종 승려 흥진대사의 도움을 얻었다. 이로 보아 장보고의 영향력이 장흥지역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장보고의 최전성기에 그의 영향력은 장흥만이 아닌 전라도 동부지역을 넘어서 남해안 전역까지 확산되었을 것이다. 장보고가 민애왕의 10만 대군을 무너뜨릴 만큼 성장했다면,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판도가 적어도 전라도지역에만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당시 순천지역에도 장보고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보고가 해상무역에 기반을 둔 세력가였음을 고려해볼 때 순천·여수지역은 당연히 그의 주요한 거점이었을 것이다. 전라도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후백제 견훤이 그의 사위인 박영규를 파견하여 순천지역을 방어했던 점을 고려해본다면, 순천지역이 남해안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순천지역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국가에서 소국연맹체 단계를 거치면서 고대국가인 백제에게 통합되었을 것이다. 소국연맹시기에는 같은 전남지역이지만 영산강 유역에서는 대형의 옹관묘가 발견되고 있는 반면, 순천지역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영산강 유역보다는 일

찍 백제에게 점령되었던 까닭에 대형고분이 만들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에게 점령된 순천지역은 무령왕대 이전에는 상당히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령왕대 이후 22담로제가 완성되면서 순천지역에는 담로가 설치되었으며, 왕의 자제종족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순천 인근지역의 토착세력은 여전히 반독립적인 상태에 있었다. 사비천도 이후 전정과 호구를 기준으로 하는 5방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순천과 인근지역의 토착세력은 점차 독자적인 권력을 빼앗기며 중앙집권화에 편제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효도를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출가와 효도의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로 화엄사 4사자석탑이 경덕왕 때 구례에 조성되었다. 하대로 접어들면서 부의 분배과정의 모순이 순천지역에서도 증가되어 박난봉과 같은 호족세력이 등장하였다. 또 「천관산기」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결과 남해안 순천지역 너머까지 장보고의 세력이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참고자료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삼국지.
- 동문선.
- 통국여지승람.
- 일본서기.
- 축일본후기.
- 김주성,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재편」, 『북사관논총』35, 1992.
- 김주성, 「신라말·고려초의 지방지식인」, 『호남문화연구』19, 1990.
- 김주성, 「화엄사 4사자석탑 건립 배경」, 『한국상고사학보』18, 1995.
- 노중국, 「한성시대 백제 담로제의 실시와 편제기준」, 『체명사학』2, 1991.
- 성낙준, 「영산강유역의 용관묘」, 『백제문화』15, 1983.
- 위은숙, 「나말여초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그 주도세력」, 『투대사학』9, 1985.
-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전과 정치과정」, 『신라골품제사학회와 화랑도』, 1980.
- 이기동, 「장보고와 그의 해상왕국」, 『장보고의 신연구』, 1985.
- 이기백, 『新羅私兵考』, 『신라정치사학회사연구』, 1975.
- 이병도, 「근초고왕 척경고」, 『한국고대사연구』, 1976.
- 이용범, 「삼국사기에 보이는 이슬람상인의 무역품」, 『이흥직박사회갑기념 한국사회논총』, 1999.
- 이흥영, 「순천시의 지리적 환경」, 『순천시의 문화유적』, 1992.
- 채상식, 「백련결사 성립과 사상적 경향」, 『고려후기불교사연구』, 1993.
- 천관우, 「마한제국의 위치시론」, 『고조선사·삼한사연구』, 1989.